

10 월 선교지 소식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께 안부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한 해 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두는 기쁨이 넘치는 추수의 계절이 되었고 또한 환절기가 시작되었겠지요.

하지만 남반구에 속한 이 곳은 이제 곧 더위가 시작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위에 앞서 오늘까지 지난 3 주동안 비가 많이 왔고 학교 주변이 홍수가 저 여러 번 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교앞 다리를 건너지 못하던 날도 며칠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등과 같은 모든 야외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한 분, 한 분 몸 건강 잘 유지하셔서 주의 일에 큰 유익을 남기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10 월 소식 나눕니다.

I. 탕가신학교(TCBC)

큰 문제없이 학사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11 월 22 일 있을 졸업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1. 동문 사망.

2005 년 졸업한 동문 Samuel Kuandika (사무엘 쿠안디카) 목사님이 질병으로 지난 주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땅에서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고인은 신학교 졸업후 탕가에서 약 3 시간 거리에 있는 'Lushoto(루쇼토)' 라는 산간지역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식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교회도 속히 안정을 찾게 되도록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2. 졸업생 추억만들기

다음 주 목요일 신학교 졸업반 3 학년 학생들 모두 탕가시내를 방문하여 추억의 시간을 만들려합니다.

바닷가에도 가고 점심도 함께 나누면서 지난 3 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지요. 짧지 않은 시간 함께 기숙하며 쌓아올린 동료의식이 앞으로 이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요즘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로 진입하는 길이 많은 비로 엉망이 되었고 때로는 다리가 물에 잠겨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천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 홍수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기가 길어지다 보니 오랜 시간 습한 환경에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1. 4학년 소식과 장학금

지난 9월 28일에 제 5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총 74명이 졸업하였고 4년 동안 학업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우수함과 모범, 그리고 뛰어난 향상을 이룬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을 수여하는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졸업식 중에 졸업생 외에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1인당 1백만 탄자니아 실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서울 신성장로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했고, 나머지 5명은 김은래 선교사 모친상때에 들어온 조의금(김은래 선교사 몫)으로 수여하였습니다. 이제 4학년 학생들은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10개의 과목과 3개의 과학실험 시험을 국가의 주관으로 치르게 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잘 하는데 보다 '바르게 하도록' 하는데 마음을 쓰도록 많은 중보 기도부탁드립니다.

2. 2020년 신입생 모집

새로운 1학년 학생을 모집하는 일에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 기숙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 뚫뚫한 눈으로 와서 영어로 재잘거리며 자신을 피력하느라 애씁니다. 학교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호기심 가능한 눈으로, 기대감에 찬 얼굴로 교실을 들여다 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형들이 멋지게 보이는지 한참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작은 소년들이 지금까지 총 78명 합격했습니다. 정기시험은 마무리 되었지만 수시로 시험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인원은 더 늘어갈 전망입니다.

3. 한국 교사연수프로그램

다음달 11월 말 부터 약 2주간 저희 부부와 우리 고등학교 과학교사 3명 그리고 인근지역의 국립 무혜자고등학교 과학교사 1명이 대전 충남대학교 내의 백마 사회공헌 센터 (센터장: 권재열 박사)초청으로 여행길에 오릅니다. 백마사회공헌센터 주관의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대학들은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한밭대학교 등 세 곳입니다. 이번 초청은 국가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사 재교육의 형식입니다.

정규적으로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곳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이 뜻을 가진 기관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 사업을 개발 및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세대와 나라를 연결하는 미래를 위한 국제개발 교육사업 분야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탄자니아 지방 정부와 연계한 대전지역 대학들의 협력은 그 의미면에서 큰 성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를 비롯한 출국을 위한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정규 ICT 교육 외에 과외교육으로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2년간 해 왔던 우리 리빙 스톤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코딩교육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교사 재교육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III. 김은래 선교사 노동허가 발급.

지난 1 개월동안 마음 조려왔던 노동허가를 지난 주에 발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 체류비자를 신청 중인데 모든 지원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20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서류들은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어서 그것을 준비하는데 또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서류준비가 까다롭게 바뀐만큼 접수 후의 절차는 덜 지체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모든 준비와 절차가 잘 진행되어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IV. 각종 건축 진행 상황

1. 교회 헌당예배.

지난 해부터 시작하여 올해 건축을 마친 교회 세 곳의 헌당예배가 지난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 월 20 일 주일, 무헤자 군에 위치한 Kiumba(키움바) 교회의 헌당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Msami(음사미) 목사님은 현재 탕가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당예배를 가는 중 시골길을 들어선지라 비포장 도로의 우기철 상황은 언제나 이런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야하나봅니다. 길 한 가운데 트럭이 질퍽거리는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저기 멀리 언덕위에 빨간 교회지붕이 손톱만하게 보이는데 차를 세워두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던 비는 그치고 따가운 햇살이 목덜미를 바짝 쬐아옵니다. 약 30 분 걸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배를 드리던 중 다가왔던 햇살은 어디론가 떠나가고 다시 비바람이 세차게 창문으로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땀이 마릅니다. 예배 중에 비가 오고 그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돌아갈 때는 우산이 없어도 갈 수 있으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칭찬은 우리가 들으니 선교사역이 참 보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감사한 하루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헌당예배의 모든 일정은 다음 달 11 월 10 일에 모두 끝나게 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에 참여해 주신 후원의 손길에 다시 감사합니다.

2. 선교센터 건축.

건물의 모든 뼈대가 완공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우기로 인하여 한국형 빨간벽돌 제작이 늦어져 지체되고 있습니다.

빨리 우기가 끝나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V.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미국방문 계획.

앞서 소식 드린대로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는데로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방문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꼭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세요.

방문 날짜는 12 월 14 일(도착)이며 미국에서의 출발은 학교개학 이전인 내년 1 월 3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의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태일선사님 내외께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치료중에 계시고 11 월 14 일 사역지로 출발한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계속 두 분 선교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VI. 기도제목.

1. 중학교 4학년들의 국가시험을 위하여.

(11 월 4일부터 14 일 까지)

2. 선교센터 공사가 다시 진행되도록.

3. 20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4.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2019 년 10 월 25 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